

성호전자 (043260)

다가오는 CPO 시대의 주인공

전기전자/IT부품

Analyst 양승수

seungsoo.yang@meritz.co.kr

차세대 네트워크 CPO, 가속과 확장 동시 전개

CPO란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반도체 칩과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학 부품(레이저, 광검출기 등)을 하나의 패키지 기판 위에 집적하는 기술이다. 기존 Pluggable 방식이 광학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칩과 모듈 사이를 구리 배선으로 연결했다면, CPO는 해당 구간을 광섬유로 대체하고 물리적 경로 자체를 대폭 단축한다. 이를 통해 고속 전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발열과 신호 감쇠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전력 소모 역시 Pluggable 방식 대비 최대 50% 수준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CPO는 최근 Lumentum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기존 Scale-out 중심의 적용 범위를 넘어 Scale-up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

성호전자 - 에이디에스테크 인수로 CPO 밸류체인 핵심 축 부상

에이디에스테크는 2000년 설립된 광트랜시버 정렬 장비 전문 업체다. 2025년 12월 8일 성호전자가 에이디에스테크 지분 87.5%를 약 2,80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으며, 2월 13일 기준 거래를 종결하며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 에이디에스테크의 장비는 광모듈 내부에서 레이저, 렌즈, 광섬유를 나노미터 단위로 정렬해 광 결합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사의 장비는 전송 가능한 데이터 용량에 따라 400G, 800G, 1.6T로 구분되며, 2025년까지는 800G형 제품을 주력으로 납품했으나 올해를 기점으로 1.6T 차세대 장비의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동사는 2023년부터 CPO형 Alignment 장비 개발을 시작, 2024년 2분기부터 관련된 R&D 및 파일럿 단계의 수주가 발생했다. 2025년에는 양산 수주 본격화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으며 2026년부터 CPO 관련 장비 수주 및 신규 매출의 본격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2026년 에이디에스테크의 실적은 매출액 865억원(+51.2% YoY), 영업이익 428억원(+78.4% YoY)을 전망한다. 지난해 말부터 1.6T 및 1.6T CPO 관련 수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세대 전환 효과에 힘입어 2026년에는 다시 한 번 큰 폭의 외형 성장과 이익 레버리지 확대가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나 국내 유일한 광트랜시버 및 CPO 정렬 장비 밸류체인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고, Active Alignment 기반의 고마진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Meritz Research 2026. 2. 20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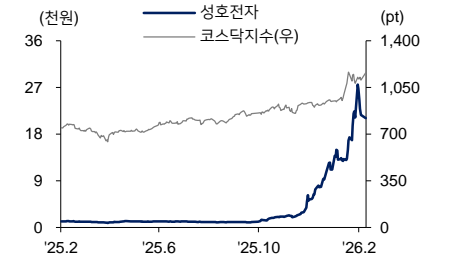
| | |
|-------------|---------|
| 적정주가 (12개월) | - |
| 현재주가 (2.19) | 21,100원 |
| 상승여력 | - |

| | |
|------------|--------------|
| KOSDAQ | 1,160.71pt |
| 시가총액 | 14,965억원 |
| 발행주식수 | 7,092만주 |
| 유동주식비율 | 44.88% |
| 외국인비중 | 0.86% |
| 52주 최고/최저가 | 27,550원/909원 |
| 평균거래대금 | 269.0억원 |

| | |
|-------------|-------|
| 주요주주(%) | |
| 서용전자 외 12 인 | 55.12 |

| | | | |
|-----------|------|--------|--------|
| 주가상승률 (%)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 절대주가 | 60.1 | 1903.8 | 1614.1 |
| 상대주가 | 33.6 | 1260.3 | 1049.3 |

주가그래프



| (십억원)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지배주주) | EPS (원) (지배주주) | 증감률 (%) | BPS (원) | PER (배) | PBR (배) | EV/EBITDA (배) | ROE (%) | 부채비율 (%) |
|-------|-------|------|---------------|-------------------|------------|------------|------------|------------|------------------|------------|-------------|
| 2020 | 107.2 | 2.8 | 13.6 | 354 | -345.3 | 1,385 | 4.3 | 1.1 | 17.3 | 18.7 | 94.0 |
| 2021 | 133.2 | 1.2 | 3.2 | 59 | -83.2 | 1,739 | 26.9 | 0.9 | 23.3 | 3.4 | 114.1 |
| 2022 | 153.6 | 2.0 | -4.2 | -79 | 적전 | 1,554 | -15.1 | 0.8 | 14.7 | -5.0 | 179.7 |
| 2023 | 208.1 | 25.9 | 17.7 | 331 | 흑전 | 1,894 | 4.2 | 0.7 | 4.8 | 17.5 | 164.4 |
| 2024 | 207.3 | 6.3 | 8.0 | 138 | -58.5 | 2,334 | 8.1 | 0.5 | 15.1 | 5.6 | 15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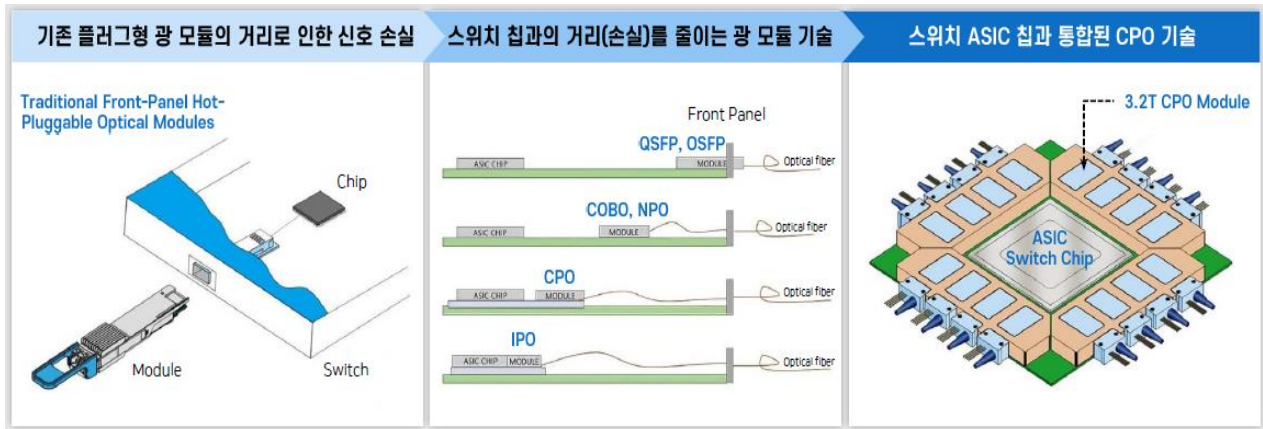
CPO 부각의 배경

CPO란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반도체 칩과(ASIC, CPU, GPU 등)과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학 부품(레이저, 광검출기 등)을 하나의 패키지 기판 위에 집적하는 기술이다. 기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는 Pluggable Networking 구조를 기반으로 광트랜시버 모듈을 활용해 서버 랙 간 연결을 구현해왔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의 확장과 함께 GPU 및 서버 랙 간 상호 연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방식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Pluggable 방식에서는 스위치 ASIC과 광 모듈 사이에 약 150~200mm의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며, 해당 구간은 전기 신호를 구리 배선으로 전달한다. 문제는 Serdes 속도가 고도화될수록 구리 기반 인터커넥트에서 발열과 신호 감쇠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1.6T 이상 세대에서는 동작 주파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Insertion Loss(전송 경로를 통과하는 동안 신호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가 구조적으로 심화된다. 이는 대역폭 확장과 전력 효율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전기적 병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한 기술이 바로 CPO다. 광 소자를 칩 인접 영역에 직접 집적함으로써 전기 신호 구간을 최소화하고, 고속·저전력 인터커넥트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기존 Pluggable 방식이 칩과 모듈 사이를 구리 배선으로 연결했다면, CPO는 해당 구간을 광섬유로 대체하고 물리적 경로 자체를 대폭 단축한다. 이를 통해 고속 전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발열과 신호 감쇠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전력 소모 역시 Pluggable 방식 대비 최대 50% 수준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칩 인접 위치에 광학 엔진을 배치함으로써 초고밀도 대역폭 구현이 가능해지고, 이는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대규모 GPU 클러스터 환경에서 네트워크 효율은 곧 연산 효율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CPO는 AI 학습과 추론 모두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 CPO 기술 개발 로드맵과 강점



자료: FiberMall,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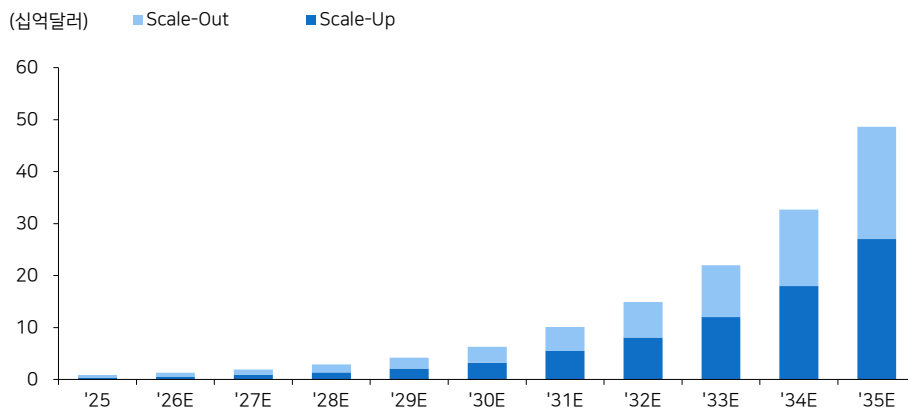
CPO, 가속과 확장의 동시 전개

CPO는 Nvidia가 GTC 2025에서 차세대 네트워킹 솔루션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어 CES 2026에서 Spectrum-X Ethernet Photonics를 공개하며 CPO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했고, Vera Rubin 플랫폼이 출시되는 3Q26을 상용화의 분기점으로 제시했다. 당시 회사는 CPO 적용 시 전력 효율이 기존 대비 최대 5배 개선되고, 시스템 신뢰성은 10배 향상된다고 설명하며 기술적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CPO가 추가적으로 부각되는 배경에는 Lumentum의 실적 발표가 자리하고 있다. Lumentum은 주요 고객사로부터 CPO 관련 수주를 확보했다고 언급하며, 2H27 양산이 예상되는 Rubin Ultra NVL575 세대에서 Scale-up 영역까지 CPO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CPO는 주로 Scale-out(랙 간 연결)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Scale-up(랙 내부 및 보드 내부의 고집적 연결)으로 확장될 경우 시장 규모는 구조적으로 한 단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 랙 내부 GPU 수 증가(72→576)에 따라 고속 전송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CPO 적용 범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2) Scale-up CPO는 궁극적으로 GPU·HBM·광 엔진이 동일 패키지 내에서 통합되는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 모듈 교체가 아닌 고난도 패키징 기술을 수반하게 된다. 그 결과 단위 시스템당 부가가치 역시 크게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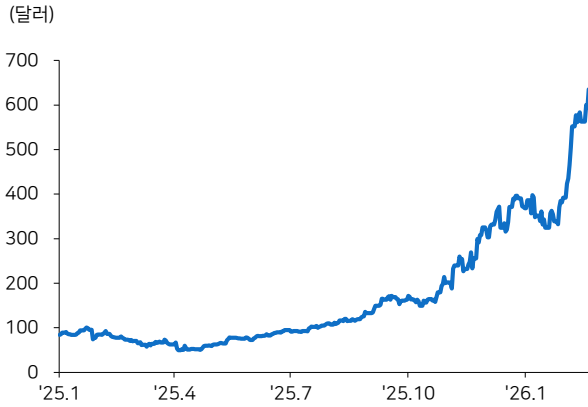
글로벌 CPO 밸류체인 주가는 지난해 Nvidia GTC 이후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우상향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에는 상용화 로드맵이 구체화되면서 “도입 시점의 가시화”가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Lumentum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기존 Scale-out 중심의 적용 범위를 넘어 Scale-up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가 추가로 반영되는 국면이다. 즉 현재 시장은 CPO의 ‘도입 가속화’와 ‘적용 영역 확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 글로벌 CPO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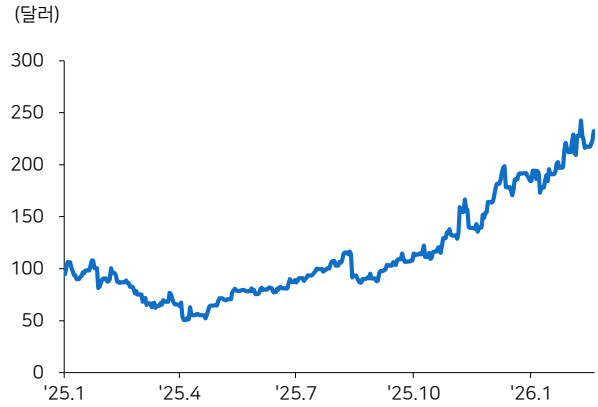
자료: Yole Group, Lightcountin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Lumentum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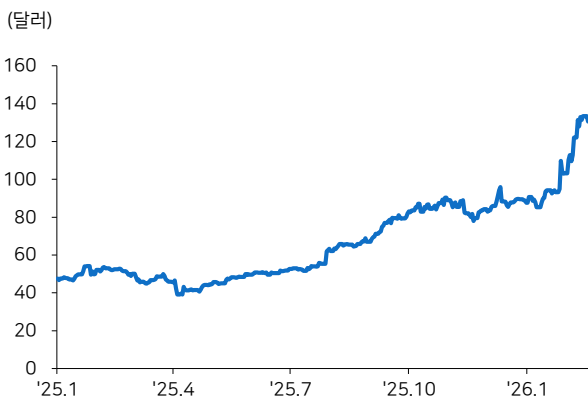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Coherent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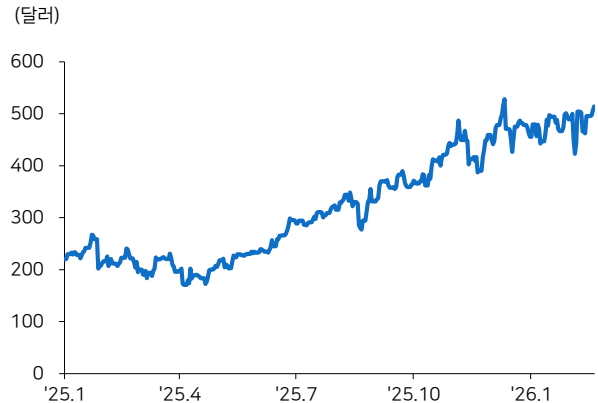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Corning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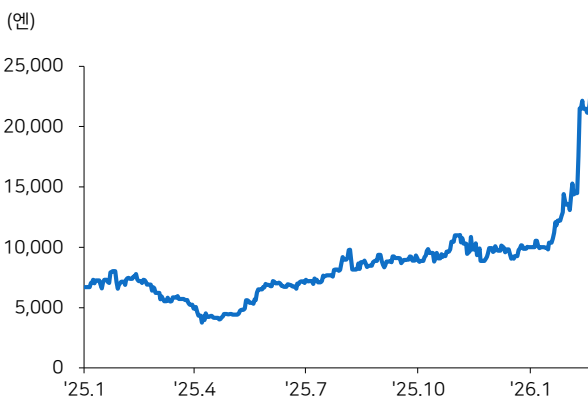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Fabrinet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후루카와 전기공업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스미토모 전기공업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PO 시장의 준비된 주인공 '에이디에스테크'

에이디에스테크는 2000년 설립된 광트랜시버 정렬 장비 전문 업체다. 2025년 12월 8일 성호전자가 에이디에스테크 지분 87.5%를 약 2,80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으며, 2월 13일 기준 거래를 종결하며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

에이디에스테크의 장비는 광모듈 내부에서 레이저, 렌즈, 광섬유를 나노미터 단위로 정렬해 광 결합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 정렬 기술은 방식에 따라 Passive Alignment와 Active Alignment로 구분되는데, 동사는 Active 방식을 적용해 기존 Passive 방식 대비 정렬 정밀도와 결합 효율이 높고, 정렬 과정에서 실시간 광 신호 기반의 모듈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이다.

동사의 장비는 정렬 이후의 부착 공정에 따라 Laser 장비와 Epoxy 장비로 구분된다. 이 중 Active Alignment 기술이 적용된 렌즈 정렬용 Epoxy 장비가 데이터 센터용 고속 광트랜시버 생산에 주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Epoxy 장비는 또한 전송 가능한 데이터 용량에 따라 400G, 800G, 1.6T로 구분되며 2025년까지는 800G향 제품을 주력으로 납품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1.6T 차세대 제품군의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동사는 2023년부터 CPO향 Alignment 장비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2분기부터 관련된 R&D 및 파일럿 단계의 수주가 발생하였다. 2025년에는 양산 수주 본격화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으며 2026년부터 CPO 관련 장비 수주 및 신규 매출의 본격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동사는 2015년부터 이스라엘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Mellanox와 협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 기준 Mellanox향 매출이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는 핵심 고객사로 자리잡고 있다. 2020년 Mellanox가 Nvidia에 인수된 이후에는 Nvidia와 차세대 네트워크 관련 기술을 공동 선형 개발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품 고도화를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Nvidia와의 기술 레퍼런스를 토대로 글로벌 고객사로의 공급 확대에도 성공하였다. 3Q25 누적 매출 기준으로는 Mellanox 외에도 Optolink, Lumentum 등이 주요 고객사로 자리하고 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Jabil, Broadcom, Marvell, Accton 등으로의 추가 납품 확대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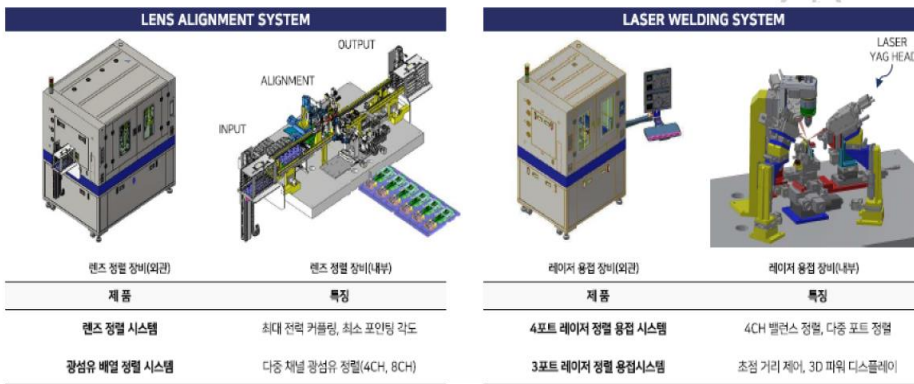
2026년 에이디에스테크의 실적은 매출액 865억원(+51.2% YoY), 영업이익 428억원(+78.4% YoY)을 전망한다. 800G향 장비 수주가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른 매출이 3Q24~1Q25 구간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영향으로 2025년 실적은 2024년 대비 기저 부담이 존재해 일시적인 역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1.6T 및 1.6T CPO 관련 수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세대 전환 효과에 힘입어 2026년에는 다시 한 번 큰 폭의 외형 성장과 이익 레버리지 확대가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에이디에스테크가 국내 유일한 광트랜시버 및 CPO 정렬 장비 밸류체인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고, Active Alignment 기반의 고마진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표1 에이디에스테크 실적 추이 및 전망

| (십억원) | 2022 | 2023 | 2024 | 2025E | 2026E |
|-------------|-------|--------|----------|--------|-------|
| 매출액 | 12.1 | 9.5 | 63.6 | 55.5 | 86.5 |
| YoY (%) | | -21.7% | 568.5% | -12.7% | 55.9% |
| 영업이익 | 2.2 | 0.1 | 25.3 | 23.0 | 42.8 |
| YoY (%) | | -95.6% | 26486.3% | -8.9% | 86.2% |
| 영업이익률 (%) | 18.0% | 1.0% | 39.7% | 41.4% | 4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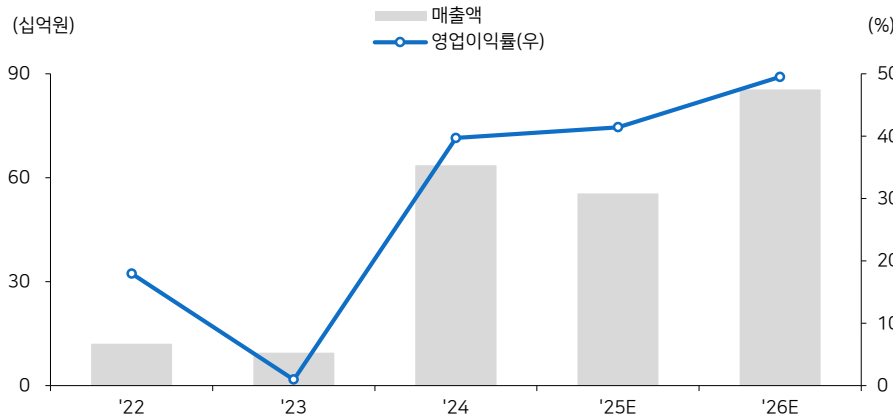
주: 2025년은 M&A 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 예상
 자료: 성호전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에이디에스테크 주요 제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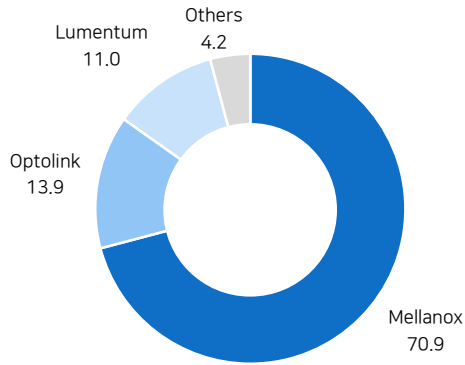
자료: 성호전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에이디에스테크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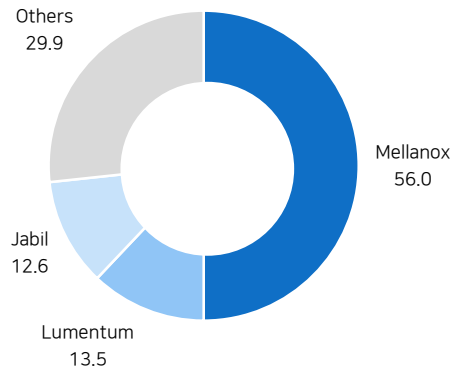
자료: 성호전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고객사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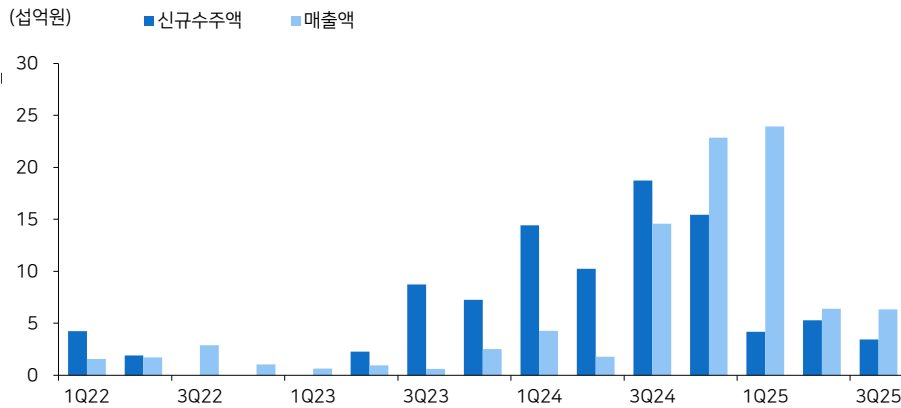
자료: 성호전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2026년 고객사 매출 비중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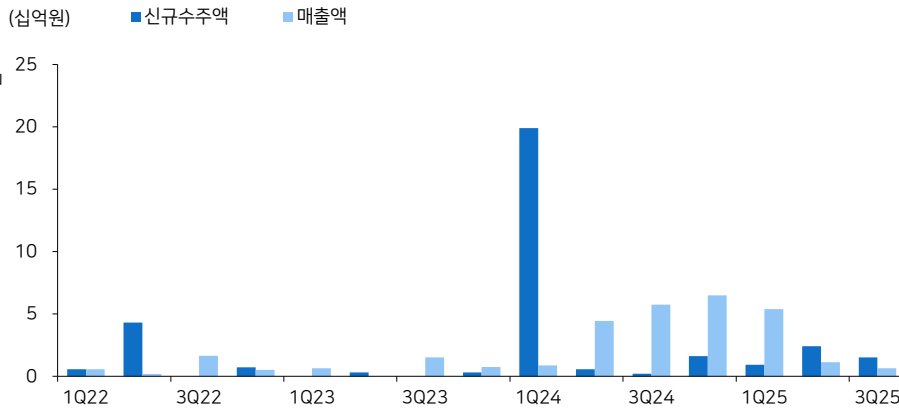
자료: 성호전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분기별 EPOXY 장비 신규 수주액 및 매출액 추이



자료: 성호전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분기별 Laser 장비 신규 수주액 및 매출액 추이



자료: 성호전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성호전자 (043260)

Income Statement

| (십억원)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매출액 | 107.2 | 133.2 | 153.6 | 208.1 | 207.3 |
| 매출액증가율(%) | 8.0 | 24.3 | 15.3 | 35.5 | -0.4 |
| 매출원가 | 91.9 | 115.5 | 129.1 | 161.9 | 171.4 |
| 매출총이익 | 15.3 | 17.7 | 24.5 | 46.2 | 36.0 |
| 판매관리비 | 12.4 | 16.5 | 22.4 | 20.3 | 29.7 |
| 영업이익 | 2.8 | 1.2 | 2.0 | 25.9 | 6.3 |
| 영업이익률(%) | 2.6 | 0.9 | 1.3 | 12.4 | 3.0 |
| 금융손익 | 8.6 | -0.9 | -4.1 | -4.0 | -7.4 |
| 중속/관계기업손익 | 0.2 | -0.1 | -1.5 | -0.0 | 4.1 |
| 기타영업외손익 | 3.7 | 3.1 | -2.0 | 1.1 | 10.0 |
| 세전계속사업이익 | 15.3 | 3.4 | -5.6 | 22.9 | 13.1 |
| 법인세비용 | 1.7 | 0.2 | -1.4 | 5.4 | 5.0 |
| 당기순이익 | 13.6 | 3.2 | -4.2 | 17.6 | 8.1 |
|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 13.6 | 3.2 | -4.2 | 17.7 | 8.0 |

Statement of Cash Flow

| (십억원)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0.6 | -11.7 | 39.4 | 4.5 | 25.2 |
| 당기순이익(손실) | 13.6 | 3.2 | -4.2 | 17.6 | 8.1 |
| 유형자산상각비 | 4.2 | 5.2 | 5.9 | 5.1 | 6.6 |
| 무형자산상각비 | 0.2 | 0.2 | 0.2 | 0.1 | 0.4 |
| 운전자본의 증감 | -7.2 | -17.3 | 32.6 | -32.7 | 23.6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23.3 | -12.3 | -24.7 | -3.5 | -96.8 |
| 유형자산의증가(CAPEX) | 7.3 | 12.6 | 14.7 | 6.1 | 36.3 |
| 투자자산의감소(증가) | 2.8 | 15.5 | 2.5 | -0.7 | 16.8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21.7 | 27.2 | 16.9 | 9.5 | 60.7 |
| 차입금의 증감 | 3.3 | 20.2 | 8.1 | 42.3 | 19.9 |
| 자본의 증가 | 8.8 | 13.9 | 24.5 | -25.2 | 30.9 |
| 현금의 증가(감소) | -1.0 | 3.2 | 31.6 | 10.8 | -10.7 |
| 기초현금 | 2.9 | 1.9 | 5.2 | 36.8 | 47.6 |
| 기말현금 | 1.9 | 5.2 | 36.8 | 47.6 | 36.9 |

Balance Sheet

| (십억원)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유동자산 | 68.5 | 124.8 | 153.3 | 166.8 | 189.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 | 5.2 | 36.8 | 47.6 | 36.9 |
| 매출채권 | 26.5 | 34.2 | 37.6 | 39.8 | 58.4 |
| 재고자산 | 17.1 | 74.1 | 63.7 | 43.5 | 47.3 |
| 비유동자산 | 73.1 | 74.1 | 78.9 | 103.1 | 177.6 |
| 유형자산 | 55.7 | 34.5 | 38.7 | 61.1 | 104.4 |
| 무형자산 | 4.3 | 7.2 | 5.9 | 2.1 | 9.5 |
| 투자자산 | 3.6 | 19.0 | 20.1 | 19.4 | 32.0 |
| 자산총계 | 141.6 | 198.9 | 232.1 | 269.9 | 367.3 |
| 유동부채 | 57.0 | 80.3 | 98.7 | 142.9 | 167.9 |
| 매입채무 | 13.9 | 17.0 | 27.4 | 29.2 | 34.3 |
| 단기차입금 | 42.1 | 56.7 | 52.7 | 91.5 | 109.9 |
| 유동성장기부채 | 0.3 | 2.0 | 1.2 | 0.9 | 3.4 |
| 비유동부채 | 11.6 | 25.7 | 50.4 | 25.0 | 56.0 |
| 사채 | 0.0 | 0.0 | 0.0 | 0.0 | 4.9 |
| 장기차입금 | 5.8 | 16.1 | 42.6 | 15.5 | 32.2 |
| 부채총계 | 68.6 | 106.0 | 149.1 | 167.8 | 223.9 |
| 자본금 | 26.4 | 26.7 | 26.7 | 26.7 | 30.5 |
| 자본잉여금 | 17.2 | 17.9 | 17.9 | 17.9 | 32.7 |
| 기타포괄이익누계액 | 26.6 | 42.2 | 41.3 | 43.1 | 29.3 |
| 이익잉여금 | 3.7 | 6.9 | 3.1 | 20.5 | 49.9 |
| 비지배주주지분 | 0.0 | 0.0 | 0.0 | 0.9 | 1.1 |
| 자본총계 | 73.0 | 92.9 | 83.0 | 102.1 | 143.5 |

Key Financial Data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주당데이터(원) | | | | | |
| SPS | 2,778 | 2,497 | 2,876 | 3,896 | 3,585 |
| EPS(지배주주) | 354 | 59 | -79 | 331 | 138 |
| CFPS | 995 | 422 | 442 | 920 | 1,165 |
| EBITDAPS | 189 | 125 | 153 | 583 | 229 |
| BPS | 1,385 | 1,739 | 1,554 | 1,894 | 2,334 |
| DPS | 0 | 0 | 0 | 0 | 0 |
| 배당수익률(%) | 0.0 | 0.0 | 0.0 | 0.0 | 0.0 |
| Valuation(Multiple) | | | | | |
| PER | 4.3 | 26.9 | -15.1 | 4.2 | 8.1 |
| PCR | 1.5 | 3.8 | 2.7 | 1.5 | 1.0 |
| PSR | 0.5 | 0.6 | 0.4 | 0.4 | 0.3 |
| PBR | 1.1 | 0.9 | 0.8 | 0.7 | 0.5 |
| EBITDA(십억원) | 7.3 | 6.6 | 8.2 | 31.1 | 13.3 |
| EV/EBITDA | 17.3 | 23.3 | 14.7 | 4.8 | 15.1 |
| Key Financial Ratio(%) | | | | | |
| 자기자본이익률(ROE) | 18.7 | 3.4 | -5.0 | 17.5 | 5.6 |
| EBITDA 이익률 | 6.8 | 5.0 | 5.3 | 15.0 | 6.4 |
| 부채비율 | 94.0 | 114.1 | 179.7 | 164.4 | 156.0 |
| 금융비용부담률 | 1.7 | 1.4 | 1.8 | 3.0 | 3.2 |
| 이자보상배율(x) | 1.6 | 0.6 | 0.7 | 4.1 | 0.9 |
| 매출채권회전율(x) | 4.5 | 4.4 | 4.3 | 5.4 | 4.2 |
| 재고자산회전율(x) | 6.3 | 2.9 | 2.2 | 3.9 | 4.6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23년 8월 4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 기업 |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
|------------------------|--|
|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종가대비 3등급 | <p>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20 거래일)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p> <p>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20 거래일)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 +20% 미만</p> <p>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20 거래일)간 평균종가대비 -20% 미만</p> |
| 산업 |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
|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 <p>Overweight (비중확대)</p> <p>Neutral (중립)</p> <p>Underweight (비중축소)</p> |

투자의견 비율

| 투자의견 | 비율 |
|------|-------|
| 매수 | 86.1% |
| 중립 | 13.3% |
| 매도 | 0.6%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